현장시선

제주를 대한민국 대표 기후 행동 플랫폼으로

고 태 언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

기후위기는 선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목표를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의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제주가 2035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제도 정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의 참여, 기업의 책임, 행정의 설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지금 제주에 필요한 것은 정책의 보완이 아니라 실행 플랫폼의 구축이다.

제주는 이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은 에너지, 교통, 관광, 해양 환경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돼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작은 변화가 곧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조다. 이는 동시에 위기이자 기회다. 제주에서 작동하는 모델은 대한민국 어디서든 확산 가능한 표준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환경 활동은 주로 정화 중심의 행사형 봉사로 운영돼 왔다. 의미 있는 참여였지만 성과는 축적되지 못했다. 쓰레기를 줍는 손길은 있었으나 그 데이터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구조는 부족했다. 이제는 '경험 중심 활동'에서 '성과 중심 기후 행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양 쓰레기 수거량, 반복 오염 지점 분석, 생활 탄소 감축 실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개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정보 시스템이 아니다. 시민 참여를 구조화하고, 기업 ESG 전략과 연결하며, 행정 정책으로 환류되는 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 예컨대 기업은 임직원 참여형 기후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 감축 수치를 확보하고, 자원봉사 플랫폼은 이를 데이터로 관리해 연간 리포트로 제공한다. 행정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개선한다. 참여가 곧 정책 실행이 되는 구조다.

미래세대의 참여도 핵심이다. 청소년과 청년은 기후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다. 학교 교육과 연계한 프로젝트형 기후 활동을 통해 지역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경험은 단순 봉사를 넘어 '기후 시민성'을 키우는 과정이 된다.

더 나아가 제주에는 '기후 행동 센터'와 같은 상징적 거점이 필요하다. 데이터 분석, 교육, 기업 협력, 국제 교류가 통합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연간 기후 행동 성과 보고서가 발간되고, 기업 ESG 사례가 공유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이 이뤄진다면 제주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기후 행동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기후위기는 속도의 문제다. 실행은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제주가 선택해야 할 길은 명확하다. 기술 중심 정책 위에 시민 참여 기반의 실행 플랫폼을 더하는 일, 그 위에 기업의 ESG 전략을 얹고, 미래세대를 연결하는 구조를 완성하는 일이다.

집게를 들고 해안을 걷는 시민의 발걸음이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가 정책이 되며, 정책이 다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선순환. 그 구조가 완성될 때 제주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후 행동 플랫폼으로 기억될 것이다.

사설

간첩조작사건, 실태조사로 끝내선 안돼

2019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세 남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천리마' 만년필을 소지했다가 체포, 196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일본으로 농업연수를 떠났던 오빠이자 형인 A씨가 돌아와 나눠준 만년필이다. 일본에서 친족에게 받은 것이었다. 만년필에는 '천리마'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세 남매는 경찰에 체포돼 나란히 법정에 섰다. 이후 징역형을 선고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며칠 전 제주지역 간첩조작사건 피해실태 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가 공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22~2025년 사이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제주지역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는 모두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1960~1980년 공안기관 수사 과정에서 재일제주인과의 일상적 교류가 간첩 혐의로 확대되며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보기관과 경찰의 연행·구금 과정은 물론 검찰·재판부의 판단 역시 사건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자치도는 보고서를 재심·진실규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피해자 명예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또한 최근 간첩 조작 등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 11명의 상훈을 박탈했다. 주요 사건 소송에 기여했거나 간첩사건의 공을 인정받아 훈장·포장을 받은 이들이다. 진상 규명·피해자 지원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조작사건 조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잘못에 대한 단죄 없이는 비극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정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별 유치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이후 추가 부처 이전은 없다는 방침이 재확인되면서, 각 지역은 공공기관 유치에 역량을 총집결하는 분위기다. 현재 이전이 거론되는 기관만 300여 개에 달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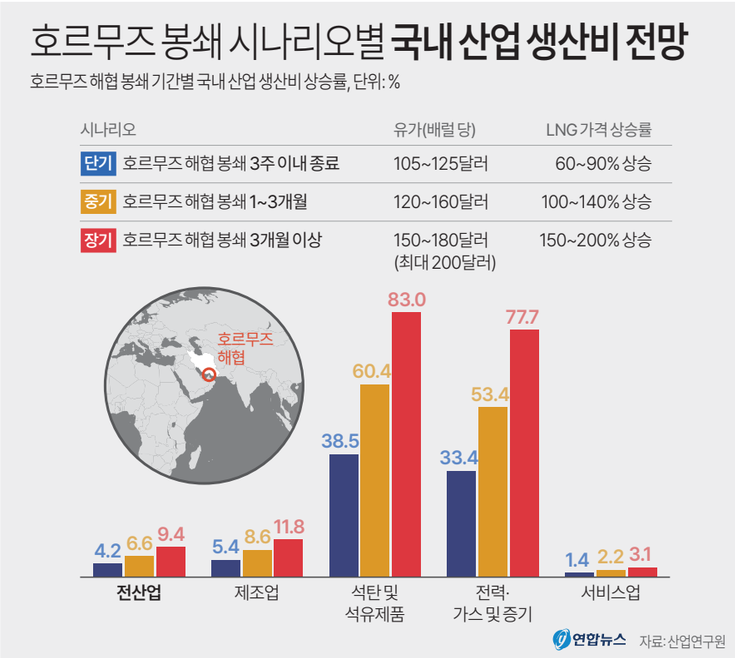
제주도 역시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주요 기관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전남은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앞세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해양 관련 기관은 부산 중심의 집적화 흐름이 뚜렷하다. 실제로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광주, 전남, 충북이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개편안을 검토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함께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점이 변수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충남, 충북, 대구, 광주, 울산, 전북 등이 유치를 희망해 경쟁이 치열하다.

제주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상대적으로 소외됐고, 2023년에는 재외동포재단이 다시 빠져나가는 아픔도 겪었다. 현재 제주에 이전한 기관은 8곳, 인원은 854명에 그치며 일부 기관은 지역과의 소통에도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제는 단순히 몇 개 기관을 유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기관이 제주에 왜 와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제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선별해 유치하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그래픽 뉴스



열린마당

꽃샘추위 속 마음에도 봄을

강 경 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봄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지만, 노인에게는 변화와 일상 적응이 몸과 마음에 작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노인 우울감과 깊이 연결돼 있다. 여러 심리학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나 가족·지역사회 연결망이 부족할수록 우울감이 높아지고, 외로움이 노인의 우울감 증가의 중요한 예측 인자로 나타났다.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거주 환경의 질, 자연과 접촉하는 시간, 일상 속 활동 기회는 노인의 정서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햇빛의 양과 계절의 흐름이 마음에도 작은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일상과 환경의 변화가 겹치면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느끼는 노인이 늘어난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노인층에서는 위험이 더 크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국내 현실에서,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와 자살률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될 수 있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라는 한마디, 평소와 다른 행동을 살펴보는 따뜻한 시선, 필요할 때 보건소나 가족·돌봄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은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다. 서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언제든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부 고

김석만(前 중등교사) 어머니 전주이씨 효순(향년 96세)께서 서기 2026년 3월 18일(수) 17시 33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6년 3월 20일(금요일)
▶발인일시 : 2026년 3월 21일(토요일) 오전 6시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장 지 : 양지공원

배우자 김정실
아 들 김석만 며느리 추계숙
석준 이은옥
딸 김예숙 사 위 김성익
미숙 이양노
인숙 문광석
손 자 김충일 손 부 양정선
유진 양하나
충훈 심성희
충헌
외손자 김형철 외손부 진영옥
형지 김소희
이상현
문호현
종현

※ 연락처 :
김석만 010-9866-4010, 추계숙 010-3690-4011
김석준 010-8743-1095, 김성익 010-9458-3303
문광석 010-9353-1095, 김예숙 010-3694-3978
김충일 010-9838-0033, 김형철 010-8662-3977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경주김씨 수열(향년 9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6년 3월 20일

아 들 양병식 며느리 오인순
병수 오금자
병후 이정생
병한 정상심
딸 양순옥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성철(1968. 07. 27. 생)
• 최후주소 : 제주시 서광로5길 27 (용담일동)

상기자는 2026년 1월 8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6년 3월 18일 제주지방법원 2026느단508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시 서광로5길 27 (용담일동)

2026. 3. 20.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김종순

상속한정승인 공고

공고인은 망 최철수(710501-1******)의 상속재산의 상속한정승인자로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이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본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최후주소: 제주시 돈내길 39 (이도일동) / 2025. 12. 26. 사망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6느단5080 상속한정승인
공 고 인: 고두순(33. 06. 25)
한정승인심판문결정일: 2026. 03. 18.
한정승인심판문송달일: 2026. 03. 19.
공고기간: 2026. 03. 20. ~ 2026. 05. 19.
신 고 처: 제주시 중앙로 270, 3층 법무사 양기석 사무소 (이도이동, 탐라빌딩)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벌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 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010-5254-6661
『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

하나장의사
616-08-85402